

-(으)ㄹ 새 없이

~할 틈도 없이

아주 작은 틈조차 없다는 뜻입니다. 새는 '사이, 틈'을 뜻하며, 이 표현은 그런 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. 가장 유명한 예가 눈코 뜰 새 없이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새 없이	쉬다 → 쉴 새 없이
받침 있음	-을 새 없이	먹다 → 먹을 새 없이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새 없이
관용구	눈코 뜰 새 없이	정신없이 바쁨
항상	부정형	새가 있다는 자연스럽지 않음
가까운 표현	-(으)ㄹ 겨를이 없다	쉴 겨를이 없다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짧은 형태를 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: 만들다는 만들 새 없이.가 됩니다. 새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이 표현은 부정형으로만 쓰입니다 — 새 없이, 새 없다, 새도 없이. 긍정형은 없습니다.

가장 잘 알려진 예는 관용구 눈코 뜰 새 없이입니다 — 눈과 코를 뜰 틈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뜻입니다. 쓰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통째로 익혀 두면 좋습니다.

이 표현은 -(으)ㄹ 겨를이 없다와 매우 가깝습니다. 겨를은 시간의 틈이고, 새는 어떤 틈이든 가리키므로 조금 더 생생하고 관용적입니다.

■ 예문

- 1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.
- 2 주문이 밀려 쉴 새 없이 손을 놀렸다.
- 3 비가 그칠 새 없이 사흘을 내렸다.
- 4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일이 이어졌다.
- 5 직접 만들 새 없이 주문이 들어옵니다.
- 6 생각할 새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.

■ 비교

-(으)ㄹ 겨를이 없다
거의 같습니다. 겨를은 특히 시간의 틈을 뜻하고 더 격식 있게 들리며, 새는 어떤 틈이든 가리키고 더 관용적입니다.
쉴 겨를이 없어요. / 쉴 새 없이 일했어요.

-기가 무섭게
기가 무섭게는 두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, 새 없이는 틈이 전혀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.
앞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다. (곧바로) / 쉴 새 없이 일했다. (계속해서)

눈코 뜰 새 없다
한 덩어리로 외워 둘 만합니다. 이 표현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“정신없이 바쁘다”라는 뜻의 관용구로 쓰입니다.
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. / 눈코 뜰 새가 없었다.

■ 주의

- ✗ **오늘은 쉴 새가 있어요.**
○ **오늘은 쉴 시간이 있어요.**
새는 부정형으로 쓰입니다. 시간이 있다고 말하려면 시간이나 여유를 쓰세요.
- ✗ **직접 만들을 새 없이 주문이 들어옵니다.**
○ **직접 만들 새 없이 주문이 들어옵니다.**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갖추고 있으므로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그대로 씁니다.
- ✗ **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.**
○ **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.**
새는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